

# 불자 음악가들 무대 나들이

부처님오신날 기념

###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 피아니스트 주형기씨 협연...수익금 '자비나눔' 기금으로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씨가 현대음악의 역사를 세로이 쓸 수 있었던 이유는? 한 마디로 서양의 악기로 내밀(內密)한 동양적 정서를 성공적으로 구현해 냈기 때문이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그 같은 작업을 이어온 주형기씨 등 불자 음악가들, 불교계 오케스트라가 함께 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장 강경진)와 조계종 불교위원회는 4월 26일 저녁 8시 호암아트홀에서 봉축기념 '창작명상음악회'를 연다. 피아니스트 주형기, 지휘자 안드레이 안드리에프, 작곡가 김대성·이진구 등 '불교'와 '서양음악'의 접점을 모색하

을 맡아 끌고 거침없는 선율이 돋보이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를 협연곡으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주씨가 국내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무대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교를 소재로 삼아 한국 클래식 명상음악을 시도한 불자음악가들의 창작명상곡도 공개된다. '한국을

**김대성씨 禪사상 담은 창작곡 공개**

**이진구씨 '광명진언' 클래식 선보여**

진언의 무게를 녹인 곡이다.

이외에도 지난해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창작오페라 '동승(작곡 이진용)'의 출연자들이 그대로 출연, 당시 연주를 맡았던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춘다.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맡게 된 안드레이 안드리에프는 동양음악과 불교에 정통한 불가리아 출신의 지휘자로,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두 차례 공연을 가진 바 있다.

강경진 단장은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협연으로 새로운 스타일의 현대 불교음악을 선보이게 돼서 기쁘다"며 "양질의 음악회를 통해 불자음악가들의 사기



이번 음악회의 지휘자로 초청된 안드레이 안드리에프.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는 국내외 음악가들이 한데 모여 정중동(情中動)의 세계를 펼쳐 보이는 무대다.

이날 공연의 백미는 세계적인 불자 피아니스트 주형기씨의 협연 무대. 주씨는 16살 때 스트라빈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천재성을 인정받은 클래식 연주자로, 빌리조엘의 음악을 피아노로 연주한 음반 '환상과 망가'가 18주 동안 빌보드 클래식 차트 1위에 오르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반야심경을 외고 잠자리에 들 정도로 독실한 불자인 그는 '불법

악을 이끄는 10인'에 선정된 바 있는 작곡가 김대성씨는 <님맞이>를 통해 한국적인 클래식을 선보인다. 이는 박경훈 스님의 선시를 음표로 구현한 곡으로, 불립문자 선(禪)의 사상을 '규격'을 갖춘 서양의 기법'을 빌어 표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작곡가 이진구씨는 대금과 오케스트라의 협연을 통해 국악과 서양 클래식의 접목을 이끈 '광명진언'을 무대에 올린다. 대금의 리듬을 반복하며 진언의 느낌을 살렸으나 오케스트라의 조화로움 선율속에

진작은 물론 한국불교음악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음악회는 조계종의 '봉축 자비나눔' 사업의 하나로 진행된다. 니르바나 측은 이번 음악회를 통해 '자비나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음악회(9월), 지방순회 키즈음악회 등으로 음악을 통한 나눔의 정신을 실천에 옮길 예정이다. (02)415-2599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 머리말에 늘 경전... 음악학교 수석 졸업

### ■ 피아노 협연하는 주형기는?

1973년 영국에서 출생한 주형기는 바이올린의 거장 예후디 메뉴힌에게 발탁돼 본격적인 음악 수업을 받았다. 뉴욕 맨하탄 음악학교를 최우수로 졸업하고, 16살 때 스트라빈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천재 피아니스트 극찬받기 시작했다. 백악관 초청 공연, 카네기 홀 단독 피아노 리사이틀 등 수많은 초청공연을 벌여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빌리 조엘과 공동 작업한 음반이 장기간 클래식 차트 1위에 올라 화제가 됐다.

기독교인의 장학금 지원 등의 유혹을 뿌리치고 머리말에 늘 경전을 두는 '불자 음악가'로도 유명하다. 영국 연화사 신도회장인 아버지의 권유로 불교와 가까워졌지만, 후원을 받은 진명스

님 등 한국불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불교서적을 탐독할 정도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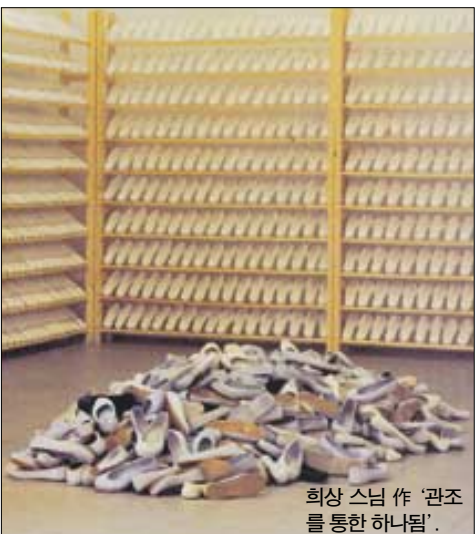
현재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활동하며 클래식 음악의 새로운 양식을 모색하는 중이다. 회극과 음악을 통합한 <Duel>을 제작해 에단버러와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선보이기도 했다. 현재 영화배우 가브리엘 번과 함께 시와 산문을 클래식 음악과 접목하는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백악관 초청 연주가 끝나후 청중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고 있는 주형기씨.

## 고무신 통해不二사상 표현

### 희상 스님의 '하나로 돌아가기'展



희상 스님 작 '관조를 통한 하나됨'.

불교에서 '발'은 특별한 개념이다. 불상이 조성되기 이전에는 부처님을 두 발의 형상(불족적·佛足跡)으로 표현하곤 했다. 45년 간 곳곳을 누비며 중생을 제도하고 진리를 전파한 의미를 상징화한 것이다.

희상 스님은 그 같은 발의 이미지를 '고무신'에 담았다. 스님은 4월 8~17일 법륜사 불일미술관에서 개인전 '하나로 돌아가기'를 연다. 스님들이 신다가 버린 낡은 고무신으로 불법을 얘기하는 설치미술 전시회다.

**1000개 석고 신발에 금강경 새겨**

1000개 고무신의 석고를 떠서 선반 위에 진열한 작품 '관조를 통한 하나됨'이 대표적이다. 신발 주인 발의 형태가 제각각인 탓에 모양과 크기도 모두 다른 고무신. 그것의 석고 모델 역시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 각각의 스님네들이 체화한 불법의 깊이, 부처님 가르침을 대중에게 회향하는 방식 등에 차이가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그 근본이자 목적은 결국 하나다. 작품의

주제가 '하나로 돌아가기'인 이유가 설명된다.

진열된 석고 고무신에는 경전 글귀까지 새겨져 있다. 희상 스님이 밤낮으로 독송하는 <금강경>이다. 스님은 "하루 8시간씩 1년을 꼬박 새겼다"며 "천 가지 생각을 '이렇고' 화두 하나로 돌리듯 일념으로 글귀를 새기다보니 금강경을 10번이나 옮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예술로 구하고자 했던 답을 수행의 과정 속에서 얻었다. 역시 '하나로 돌아가기'이다.

석고 고무신 앞에 수북이 쌓여놓은 고무신 역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때문고 늘어진 '고무신 겹데기'나 그 안에 부어서 굳힌 말간 '석고 알맹이(속형)'는 결국 돌이 아닌 하나다.

스님은 '관조를 통한 하나됨' 외에도 고무신을 벽에 걸거나 바닥에 설치한 작품들을 비롯해 40여점의 회화작품도 함께 선보인다. 이번 전시작들은 독일에서 전시돼 호평을 받은 작품들로, 스님은 동국대 석림회 29기모임 '자자회' 스님들이 독일로 직접 보내준 1000개의 고무신을 재활용해 8년여의 독일 유학 기간 동안 10여 차례 전시회를 연 바 있다. (02)733-5322

강신재 기자

## 봉정사에 기와 그림 상설 전시장 마련

### 귀일 스님 작품 30여점 전시 주제별 교체 진열...특강도



전통문양이자 불교미술인 기와그림을 상시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전시관이 문을 연다.

안동 봉정사 지조암(주지 귀일)은 4월 4일 사찰 내에 기와그림 전시관을 개원하고, 귀일 스님이 직접 그린 기와그림을 상설로 전시한다.

기와그림은 삼국시대부터 사찰이나 궁궐의 처마를 보호하고 장식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귀일(잡귀를 쫓는 용의 얼굴)이나 나한상 등 불교의 호법 신장들을 담은 그림. 귀일 스님은 조선시대 이후로 사라졌던 기와그림의 전통을 되살리고 불교 미술 응용 디자인의 활용폭을 넓히기 위해 98년부터 복원 작업에 매진해 왔다.

80여 평에 이르는 전시실 내부에는 30여점의 그림이 전시된다. 귀면, 나한, 신장, 비천상 등 기간별로 특정 기와그림 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맞는 작품들을 때때로 교체해 진열할 예정이다.

귀일 스님은 "전시관을 통해 기와그림의 모든 것을 보여줄 생각"이라며 "기회가 된다면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관람자들을 위한 기와그림 특강 등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54)855-2268

강신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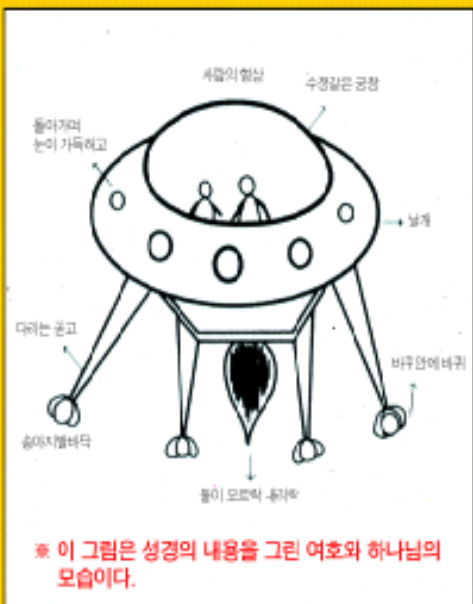
# UFO와 하나님의 실체

몇 만년에서 몇천년전까지 지구를 찾아온 외계인(UFO)은 하나님으로 군림하며 인간을 지배했다. 그 기록이 기독교 성경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기독교 성경(에스겔 1장)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타날 때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 ▷ 폭풍과 큰 구름속에서 나타난다.
- ▷ 반짝반짝 빛나는 단색(색깔)이 같은 것이다.
- ▷ 날개가 달려 있다.
- ▷ 다리는 곧고 송아지 발바닥같다.
- ▷ 바퀴가 달려 있다.
- ▷ 눈이 사방에 달려 있다(유리창으로 추정)
- ▷ 이동할 때 번개같이 빠르다.
- ▷ 수평같은 공중에 있다(돔(dome)같은 둥근 유리창으로 추정)
- ▷ 날을 때 소리는 맑은 플루트의 같다(버제트시대)
- ▷ 공중위에 사람의 형상이 있다. 이상 나열한 모양에 성경에 나오는 정확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정확하게 UFO이다. 만약 UFO가 아니라면 괴물의 형상임에 틀림없다. 이 책을 읽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 이 그림은 성경의 내용을 그린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다.



정가 8500원 도서출판 대명 TEL.042623-0829 FAX.042621-0110

지식인(知識人)일수록 허황한 신(神·귀신) 이야기가 나오는 미신에 잘 빠진다.

무시면이 불라명을 하신신 선물로 알고 이를 神으로 시듯 하는 것처럼 원시시대(UFO(우주인))를 유인 신으로 착각하고 맹신하여 신학(神學)을 연구했다면 그 신학은 과학과 비과학 비합리 비도덕적 괴리로 뒤떨어질 것이다. 기독교 성경의 고리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오직의 미개한 원주민이 비행기를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사람들이는 하느님을 보았는가? 부처님이 화낸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는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다. 이 책 한편으로 기독교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다.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이 100% UFO라고 증명한 책

우리 모두는 21세기 르네상스를 주도할 역군임을 자각합니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라 단 한번이라는 것을...

\* 광고후원은 <범민족 깨닫기 운동 모임>에서 하는 것임. \* 뜻이 있으신 분은 화선에 054-633-1138, 010-2465-1357) 동참하십시오.

## 권·心

(만의 위대한 힘)

만성지음

권의 최초 해설서

권은 우주에 존재하는 부호중에 가장 많은 진리가 함축된 위대한 힘을 갖춘 종합적 부호이다. 이 책을 읽으면 권의 위대한 신비를 알 수 있다.

도서출판 대명 정가 7,500원

## 범민족 깨닫기 운동 모임

민족의 바른 정서와 바른 종교와 바른 의식의 전환운동으로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민족의 깨닫기 운동을 주도하는 모임

회장 김도기

회·원·모·집

TEL. 054)633-1138, 010-2465-1357